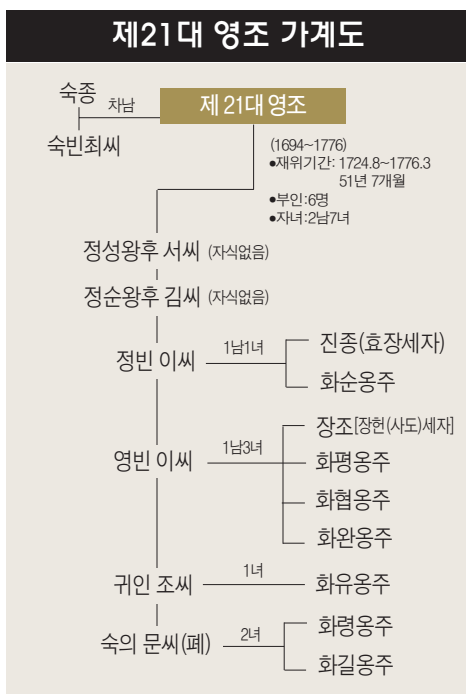


# 재위 51년...치적도 사연도 많은 조선 최장수 왕

## 45 21대 영조와 계비 정순소왕후 - 원릉

영조 1694~1776(83세)  
재위 1724.8(31세)~1776.3(83세), 51년 7개월



1 영조의 원릉 전경. 2 영조가 청계천 준설 현장을 방문한 내용을 그림으로 묘사한 수문상전원경도. 3 영조 때의 국새.

영조는 조선 역대 왕 중 최장수 했고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다. 세계사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83세, 1819~1901), 유럽 최장수 왕조 합스부르크가의 마지막 황제 프란츠 요제프(87세, 1830~1916), 일본의 쇼와 덴노 히로히토(89세, 1901~1989), 이들은 셋 다 80세 이상 살고 60년 이상 재위한 군주의 트리어드다. 재위 기간은 프란츠 요제프 68년, 빅토리아 64년, 히로히토 63년이다. 고구려 장수왕(長壽王)은 98년까지 살았고 재위기간은 79년이다.

영조는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 66세에 15세인 정순왕후를 맞이할 정도로 정력기였다. 장수와 노익장의 비결은 검소함과 금욕생활이었다. 제사 때 술 대신 식혜를 쓰게 하는 등 음주를 멀리 했다. 그의 침실을 본 사관은 이렇게 적었다. '임금이 묵연으로 된 잠옷을 입고 명주로 만든 요 하나, 이불 하나가 전부다. 병풍도 없다. 몸을 편하게 하는 도구는 민간의 부자집 침실만도 못하다.'

영조는 재위 기간이 긴만큼 치적과 사연이 많다. 군왕의 지혜에 의해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정책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영조 때는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첨예했다. 당파라고 비난 일색으로 규정하는 것은 식민사관의 결과물이다.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정당이다. 정책 정당이 아니

라 이념과 이익을 중심으로 뭉친 정치집단이다. 현대에도 명확하게 정책 정당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정당이 있나?

노론 세력과 성향이 같은 영조와 소론 측에 동조한 세자와의 갈등으로 결국 세자를 죽임으로 몰고 갔다. 스물여덟 팔팔한 청년을 뒤주 속에 처넣어 질식사시킨 전대미문 사건의 총감독이 영조다.

영조를 평생 괴롭힌 일장은 두 가지다. 어머니인 숙빈 최씨가 천한 신분이란 것과 선왕이자 이복형인 경종 독살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다. 영조는 그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간절한 노력을 기울였다. 숙빈 최씨의 아버지, 증조부, 고조부에게 벼슬을 추증했다. 외가 자제를 양반으로 승격시켜 어머니의

출신 성분을 격상시키려했다. 재위 29년(1753)에는 어머니에게 화경(和敬)이란 시호를 추서했다.

서열에 대한 규제완화도 영조의 출신 성분과 유관하다. 서열에 대한 차별규정은 태종 대에 만들어진 '서열금고법'으로부터 시작된다. 양반 소생일지라도 첩의 소생은 관직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광해군 때 '홍길동전'이 나오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양반 출신 첩의 소생을 서자(庶子), 천비 출신 첩의 소생을 열자(孽子), 이 둘을 합쳐 서열이라 한다. 당시 양반들은 주로 자신의 집에 거느리는 인물 반반한 계집종을 첩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서자보다 열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것이 서열을 더욱 멀시하는 이유였다.

## 정치적 갈등 탓에 아들 사도세자 죽음으로 내몰아 천출 어머니에 대한 콤플렉스 극복은 평생의 과제

선조 때에는 서열 1600명이 서열차별을 없애달라는 상소를 올렸다. 선조는 서출 출신으로 왕이 된 첫 번째 임금이다. 영조 즉위 원년인 1724년에는 서열 5000명이 집단 상소했다. 영조의 출신 성분을 심분 활용하겠다는 사회적 환경 때문이다. 아울러 서열 인구가 전 백성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영조는 이들이 주장하는 '서열통칭'을 무시할 수 없었다. 사회적 환경과 자신의 콤플렉스의 합의점을 찾고자 했다. 차별을 철폐하면 사회 기강이 문란해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했다.

1772년 영조는 서열도 관직에 나갈 수 있다는 통령을 허락하는 교서를 내렸다. 서열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긴 자는 처벌을 받게 했다. 물론 왕의 교서로 오랜 관습이 하루아침에 획일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선 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서열차별 철폐를 공식적으로 수용한 것이 영조다. 허균의 <홍길동전>도 시대적 배경을 세종 시대로 설정하고 있다. 그때부터 홍길동과 같은 의식을 가진 이들이 많았다는 암시다.

영조 자신이 정비 출신 소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정비에게서 자식을 얻지 못했다. 두 명의 정비는 아예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고 4명의 후궁에게서 2남7녀를 얻었지만 두 아들의 운명은 불행했다. 정빈 이씨 소생의 맏아들 효장세자는 10세에 죽었다. 영빈 이씨 소생의 둘째 아들, 영조가 마흔이 넘어 얻은 금지옥엽, 바로 사도세자다.

왕실의 자식은 그냥 자식이 아니라 공들인 작품이다. 무지렁이 백성들은 밭을 매다가도 털려, 해우소에서 나오다가도 썩썩, 아들을 낳지만 왕실의 아들은 공들여 만든 우리 작품이다. 화려하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이다. 중전이나 후궁이 간신히 화임을 하면, 조정 대신들이 거짓 웃음을 철철 흘리며 경하드리웁니다라고 법석을 쓴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 작품은 곧잘 동백꽃 망울처럼 어린 나이에 죽어버리거나, 혹은 청년으로 성장하면 권력 암투의 주요 임무를 맡아야 한다. 정상적으로, 여범하게, 축복 속에

### \*\*\*원릉(元陵)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 능역 안에 있는 21대 영조와 그의 계비 정순왕후 김씨(貞純王后金氏)의 능이다. 사적 제 193호 왕과 왕비의 능을 쌍릉으로 나뉘어 두었고, 각각 혼유석 1좌(座)를 앞에 놓았으며, 난간 중간에 사각육형(四角六形)의 장명등을 세웠고, 공간은 꽃문양으로 장식했다. 망주석의 세호(細彫)를 우상상행(右柱上行)·좌주하행(左柱下行)으로 새겼으며, 석상들은 왜소하다. 영조가 숙종의 교령을 근거로 능제도를 정비하여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을 편찬 관계로 이 능의 석물제도는 숙종·영조연간에 정비된 <국조상례보편>의 표본과 같다.

왕위를 승계한 경우는 없다. 사도세자를 사도세자로 만드는데 한몫을 특출한 한 여인이 지금 영조 곁에 묻혀있다.

영조는 정비 정성왕후가 66세로 승하하자 중전 자리를 잠시 비워두었다가 15세의 정순왕후와 가례를 올렸다. 이때 영조의 나이 66세였다. 정순왕후는 어두운 그림자를 몰고 왕실에 입성했다. 자식을 낳지 못한 정순왕후는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밖으로 삼았다. 친정아버지 김한구와 더불어 영빈 소생인 세자를 모함하는데 앞장섰다. 영조는 그녀의 책동에 분개하기도 하고 눈감아주기도 했다. 어린 신부의 책동에 높은 신랑은 애증이 갈팡질팡했다.

결국 그녀는 사도세자를 죽임으로 몰고 가는 물꼬를 댔다. 나아가 미래의 위험인 세손(정조의 등극을 막으려고 인간힘을 쓰기도 했다. 싸움이 없지않아 뒤처지는 외중에 영조의 천수가 마감되었다. 높은 영조는 세손에게 그녀의 목숨만은 보전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83세로 승하했다. 정조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켰다. 자신보다 겨우 일곱 살 연상인 할머니를 지켜주었다. 구원(舊怨)을 따지지 않은 덕분은 그녀를 손자 정조보다 오래 살았다. 증손자 순조가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수렴청정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현(사진작가)



망주석의 세호가 왼쪽을 향하게 했다.

##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 ▶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 ▶ 그늘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 ▶ 시간 조절 가능

신개발품 SMD LED전구 (국산정품)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 (국산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법당용, 외곽용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3W, 5W, 10W
- 특 필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탐들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길이다**

**연등, 영가위패**

**연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 (02)2266-2634, 2263-2638 / 구입문의 (032) 582-6235~6 /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